| 긴급진단 | **돈선거 온상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 제한 대폭 풀고 위법 처벌 강화 돈줄 죄야

❶ 광주·전남 실태
❷ 기본이 3억
❸ 조합장이 뭐길래
❹ 대책은 없나

농·수·축협 등 조합장 선거가 '불법 돈 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조합장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허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 유권자들의 의식 부족이 맞물리면서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9일 선관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 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농협법에는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단 10일이다. 기존 조합장 등이 아닌 신인 후보군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참신성을 강조한 젊은 조합장 후보들마저도 '검은 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다.

또 선거운동도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다. 호별 방문 등 직접 선거는 일체 금지돼 있고, 공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릴 수도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마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선거운동 방식에 따라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전선거운동이 만연해 있다. 선거기간은 자신의 표밭 다지기를 위한 마지막 단계일 뿐이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전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전남의 A농협 조합장은 "후보자 간 공정 경쟁은 물론 정책을 알리고 비교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발은 풀고 돈은 묶는 식의 보다 개방적인 선거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장에 집중된 경영시스템 바꿔야
후보자·조합원 공명선거 의지 중요

미약한 처벌 규정도 '일단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배짱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금품 살포,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이 판을 치지만 공직선거법에 비해 처벌이 미약해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 선거법을 따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이것이 과열 혼탁 선거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직선제로 선출된 조합장이 모든 경영권을 갖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직선 조합장들이 인사권을 포함해 경영 전반에 막강한 실권을 갖고 있다보니 선거과정에서 '돈봉투'가 난무하는 등 탈·불법으로 얼룩지고, 그 결과가 방만한 경영과 비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직선 조합장은 이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조합원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다.

후보자는 자신의 입신을 위한 '감투'로 이용하려는 사욕을 버리고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지연·혈연·학연을 배격하고 깨끗한 양심과 탁월한 조합 경영능력을 갖춘 능력있고 믿음직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수가 적고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연고가 강해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사로잡히고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꺼리는 의식도 뚜렷하다"며 "지나치게 제약된 선거운동 방식을 개방화하고 유권자들의 의식 개선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허위 서류로 보조금 타낸 군의원 기소

광주지검 장흥지청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태철)은 양식장 설비 관련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전남지역 모 기초의원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양식장의 물을 데우는 기계인 히트펌프를 설치한 뒤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2개월이 지난 5월께 펌프를 새로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천650만원을 타낸 혐의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기계를 새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사기방조)로 양식장 현장소장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여수산단 탱크로리·크레인 충돌 화재 9일 오전 5시50분께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 내 모 화학공장 앞 삼거리에서 강모(55)씨가 운전하던 탱크로리와 최모(41)씨가 운전하던 크레인(37.6t)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서 유출된 중질 가솔린(나프타)에 불이 붙으면서 차량이 전소됐고, 소방차량 27대가 동원돼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경찰도 신종플루 '비상'

남부경찰 타격대원 절반 확진 … 서부·광산경찰도 확산

신종플루는 경찰도 비켜가지 않았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의무경찰 절반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관이 직접 위경 근무를 서는가 하면, 겁없이 흉악범을 뒤쫓는 형사들도 신종플루에 감염될까 초긴장 상태다.

광주남부경찰서는 타격대원 절반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이 위경 근무를 서고 있다. 남부경찰에 따르면 타격대원 8명 중 절반인 4명이 최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대원 1명이 감기 증세를 보여 위경 근무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부대 안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은 타격대원 절반 이상이 근무에서 제외되자 고육지책으로 직원들을 위경 근무에 세우고 있다. 평일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들로 대체하고 있지만 공익요원이 출근하지 않는 야간과 주말, 휴일에는 경찰 직원들이 정복을 입고 번갈아 가며 정문을 지키고 있다.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의경 5명도 최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하느라 부대가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 4명은 완치 후 복귀했으며 1명은 치료중이다.

광주광산경찰서의 경우 형사과에 근무하는 A씨가 최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과 형사 2명도 신종플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재채기 소리만 들어도 서로 놀라고 있다"며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격리 치료중이며, 비슷한 증상만 보여도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TV 모방 '묻지마 살해시도' 징역 4년

광주지법,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선고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현태)는 9일 TV 프로그램을 모방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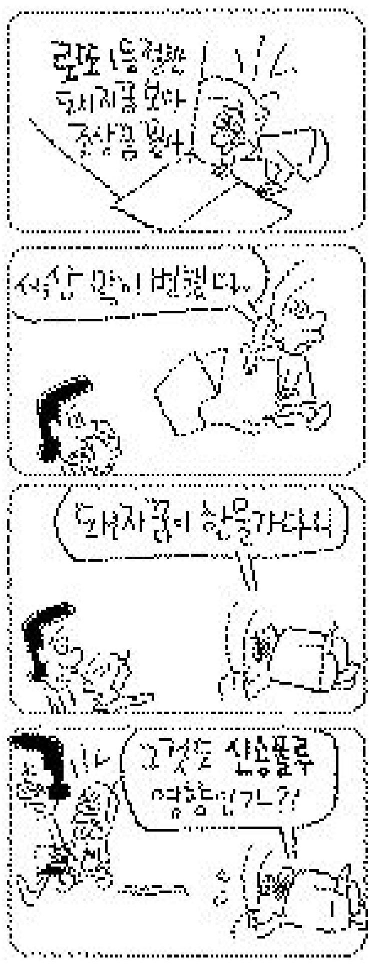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를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모 케이블TV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살인하는 장면을 본 뒤 완도군 소안면 선착장으로 나가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선배 이모(3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참여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최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고 징역 6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중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나윤참 〈7949〉 김종두



여수해상 선원 추락 사망

8일 밤 10시10분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동쪽 10㎞ 해상에서 3만t급 인도선적 화물선 J호 선원 A(56)씨가 바다에 빠진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새벽 도심에 白馬 출현 추격 소동

쌍나팔

○…한밤중 광주 도심 한복판에 말(馬)이 나타나 119 구조대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9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K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키 2m의 흰색 말 한 마리가 도로를 뛰어다니는 것을 행인이 발견,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는 것.

○…119 구조대원들은 사진을 찍는 시민들을 피해 도로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던 말을 인근 주차타워 4층으로 몰아넣었으며, 이 말은 마구간을 탈출한 지 30분 만에 포획돼 무사히 주인에게 인계.

○…말 주인은 "오치동에서 운영하는 식당 옆에서 말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밖으로 나왔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안도의 한숨.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